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 '95 예수사랑 큰잔치

##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7, 9, 11시 오후 1, 3, 5시 예배  
전 교인 전도운동으로 발돋움, 지난 주간은 초청전도집회로 모여

## ◀ 환영사 ▶

할렐루야!

오늘 '95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새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이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추구했던 것들이 한 순간에는 빛나고 화려해보였지만, 그것은 마치 꽃꽂이를 해놓은 꽃들처럼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고 아껴주어도 결국에는 پژ아지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 초청전도집회 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받고 만나신 예수님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벽마다 들꽃들 위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언제나 지나 시원하게 여러분의 메마르고 갈증난 마음을 적셔주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새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나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셔들인 그때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아울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백성이요 우리 충현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당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한 가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첫걸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시작하신 신앙생활에 정진하셔서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천국의 합격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모든 일에서도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역의 터 위에, 그리고 새로이 시작된 믿음으로의 첫걸음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충현교회 담임목사 신성중

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의 친절을 다하여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생일대 변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충현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 그 후의 우리 교회의 활동 등을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우리의 참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영접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새벽기도회와 I, II, III, IV, V부 예배를 오전 7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드리며 새신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오후 5시에 드리는 저녁 찬양예배는 새신자와 온 교우가 함께 모여 감사예배로 드리게 된다.

오늘 새로 오신 분과 새신자와 함께 오신 분들은 아래의 일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만남의 장소(교구별 텐트)에 둘러서 카드('환영합니다')를 작성합니다.
2. 맨 앞장('환영합니다')은 교구별 텐트에 제출하고 나머지 두 장은 본인이 가지고 본당에 들어갑니다.
3. 새로 오신 분들은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손드세요' 할 때에 손을 든 후에 옆에 기

다리고 있는 안내위원에게 가지고 있던 카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카드를 안가지고 계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4. 환영스티커를 가슴에 붙입니다.

5. 나가실 때 기념선물(타올)을 받으십시오.

6. 이번 기회에 충현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로비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새신자 등록실'에 가서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 예배시간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리한 시간을 택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새벽예배 / 매일 새벽 4시 30분, 5시 30분 - 갈릴리홀에서
- 주일예배 / 매 주일 오전 7, 9, 11시, 오후 1시 - 본당에서
- 주일 저녁예배 / 매 주일 오후 5시 - 본당에서
- 수요일예배 / 매 주 오전 11시, 오후 7시 - 본당에서
- 금요일예배 / 매 금요일 오후 8시, - 본당에서

▼ 지난주 있었던 초청전도집회에서 새신자와 함께 나와 카드를 작성하는 모습.



오늘은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해 온 '95 예수사랑 큰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4년째 계속하여 실시되고 있는 예수사랑 큰잔치는 이제 전 교인 전도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전도하여 교회에까지 인도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생활 중에서 열매로써 나타나야 할 것이기에, 전도에서 얻는 기쁨은 말할나위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온 교회가 새로워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주간은 7일(수)부터 9일(금)까지 오후 8시에 새신자를 초청하여 그들

에게 복음을 들려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초청전도집회가 열렸다. 본당 1, 2층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초청전도집회에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쉬운 용어로 차근차근히 전달함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결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일생에 있어 가장 인상적이고 보람된 날이 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편 충현의 성도들은 새로 오신 분



중헌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9 ●

# 음도 바벨론의 멸망(2)

(계 18:9-24)

## 1. 바벨론 멸망의 결과

### (1) 탄식하는 자들

본문에 보면 탄식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째는 악의 주모자들인 땅의 왕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득십년(權不得十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흘 붉을 꽃이 별로 없고 10년이 넘게 가는 권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소위 땅의 왕들, 악의 주모자들인 그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악의 주모자들인 왕들과 협력한 악의 협력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바로 땅의 상고들, 즉 장사꾼,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사치하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물건을 공급하던 사람들인데 정치가들 왕들이 없어졌고 그들이 없어지니 자연히 매매행위가 없어지고 고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악한 권력자들로부터 떡고물 뜯어내듯이 치부하고 향락했던 바로 그들도 탄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상고들이 있습니까?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땅의 상고들이 팔았던 일곱 가지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것은 귀금속류입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것은 의류입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병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병이요" 이 사람들은 장식품류, 기병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제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우리가 향유 하면 불란서 향유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취급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모든 향유를 취급했던 상인들도 함께 탄식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우리 인간에게는 식품이 필요합니다만 이들은 이 식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쾌락에 빠지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가축류들을 다루던 상고들도 예뻐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고 했습니다. 노예상인, 인간을 팔고 샀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사람의 영혼들"이라 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팔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팔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문에 있는 상고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이들 모두가 탄식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방관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17절 중반절을 보면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

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이 순식간에 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본래 방관자였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었습니. 그런데 심판받고 불이 붙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이, 공장이, 상점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방관합니다. 그러나 방관자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2) 세 가지 종류의 심판 대상자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

첫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둘째로 조금 더 나아가서 물질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물질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악에 대한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선보다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잠정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반드시 선이, 의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일시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들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심판때에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로 악인들의 멸망이나 고통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악에 대한 선과 정의가 승리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개인적인 증오나 악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원하고 외쳤던 그 모든 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 2. 바벨론 멸망의 상태

21-24절에 보면 바벨론 멸망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것은 문명의 종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뱀들이 나오는데 이 뱀들은 사람의 힘가지고는 돌릴 수 없는, 소나 나귀가 끄는 아주 큰 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뱀들을 바다에 한 번 던져 보십시오. 바다에 가라앉았다가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악에 대한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선보다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잠정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반드시 선이, 의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일시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도가 친다고 올라오니까?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에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말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도, 문명의 멸망도 마지막에 바다에 던져진 큰 뱀처럼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완전한 멸망, 완전한 종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문명의 종결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2절에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즉 인간 예술의 종지부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떠한 새종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산업의 파괴를 말합니다. 셋째는 "또 뿔뿔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것을 기록할 때만 해도 공장이 없었고 가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뿔뿔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23절에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이 등불은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등불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문명의 패배, 종결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23절 중반을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요즘 가정이 파괴되어 결혼가정이 많아집니다. 형식적으로는 가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결혼이나 다름없는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 참으로 무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다섯 가지 중요한 현상입니다.

## 3. 바벨론 멸망에 대한 보충 설명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이유 두 가지를 더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중반절을 보면 "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폐족하였도다"라고 했고, 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복술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술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팔말케이아인데 여기서 약국을 뜻하는 말인 파아머시(Pharmacy)란 나왔습니. 조제한다, 약을 섞는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마약 문제가 그야말로 위험수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조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약은 바로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복술이 인간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마침내는 마귀의 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번째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앗수르가 왜 망했고,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헬라와 로마와 페르시아가 왜 망했습니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왜 망했습니까? 성도들의, 하나님의 선민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라는 합니만 북한도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면 어떤 정권도, 권력도 망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지만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에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의 방관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향락에 도취되어 물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둘째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두가 성령충만하여 예수사랑 큰잔치 때 많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야합니다.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불, 회개의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말씀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 사랑의 불, 은혜의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헌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 성령충만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숫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사랑부 하기수련회를 마치고 \*

## 작은 천사들

김 중 선

(집사, 사랑부 교사)

몇주일 전부터 몇명씩 나와서 예배시간에 헌금송을 드리다가 이번 성경학교에 처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배를 도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할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사랑부 예배에 한번쯤 참석해 보셨나요?

아니면 예배다부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보셨나요? 아니라구요. 그러면 한번쯤 와 보세요. 왜냐구요? 와 보셔야지 그냥 제 이야기로는 사랑의 마음을 다 전할수가 없거든요.

사랑부 학생들은 몸놀림이 부자유스럽고 또 말소리도 딱딱딱딱하지 못해서 알아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부 학생들의 숨겨진 몸짓과 눈빛에서 천사와 같은 마음이 느껴져요. 천사와 마주앉아 있으면 내 마음의 거짓도 어리석음도 이 천사들로 인하여 녹아진답니다. 또한 도망가고 소리지르는 이들을 붙들기 위해 꼭 잡고 앉아있노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답니다. 꼭 잡았던 손이

성경학교 때 목사님은 시청각 교재를 예쁘게 만들어서 설교에 적용하시기도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집중하여 모을 수도 있어서 효과가 좋았지요. 예배 장소도 넓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경건하고 은혜스러웠답니다. 선교관 앞에서 행진, 풍선 터트리기, 과자 따먹기 같은 지체놀이하는 학생들이 모처럼 하는 놀이라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루가 너무 짧았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

그리고 또 한 가지 몇주일 전부터 몇명씩 나와서 예배시간에 헌금송을 드리다가 이번 성경학교에 처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배를 도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아름다웠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



풀리고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진실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접시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부 예배에 초청합니다.

지난 6월 6일에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했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송환장 장로님과 아버지 같은신 박경환 목사님이 말씀을 지도하고 계신데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 예배다부에서 수고하시는 이준우 강도사님을 모시고 복장을 들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장애와 장애아를 다루는데 대한 전반적인 루트를 개각했고 부족한 것들을 열심회 배움터 준비하려고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정신적 연령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할까 하여 고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강도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하실까 하는 생각에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할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찬양도 이중창으로 정말 잘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어떻게 이 지면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다 전할 수가 있겠어요. 와서 보시지 않으시면 이 안에서 변화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아이들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꼭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호흡을 같이하며 생활해 보세요(주일날 11시에 사랑부설로 오시면 됩니다).

사랑부의 백사십여명의 교사님들은 더 많은 아이들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들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이 작은 천사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 새 푸른 여름이 열리며 어디서나 산초초목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기에 하루의 삶이 등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무마다 꽃망울이 추위를 이겨내며 봄을 준비하는 것을 엿그제 본것 같은데, 몇일 사이 산천에는 각각의 초목들이 만발하여 푸르른 색깔로 아름다운 제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죄악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쓸모없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숨을 경청할 수 없고 감각으로도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골 2:12-1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

## 사랑의 하나님

유 의 상

(청년2부 회원)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깊고 크심이 감사드리며 부족한 글로나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현교회와 인연을 맺게 해주신지는 3년이 되었으나 정석교인으로 등록한지는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햇병아리 같은 충현의 지체입니다.

저는 어릴적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는 무수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세상과 짝하고 있었으며,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그 누구도 내 곁에 앉아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성경말씀을 일러 주지 않았고, 더욱이 폭력전과자라는 굴레 때문에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과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와 좌절, 갈등, 대립, 불안, 투쟁, 한탄, 눈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통하여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감사한 마음가짐으로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각으로도 하나님의 말

이제 지나간 세월 속에 방황하던 지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깨끗히 씻을 만났기에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깊이 영접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보다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으며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삭막하기만한 이 험악한 세상, 다니는 길마다 곳곳마다 생존경쟁 때문에 몸부림치며 모두가 속이고 속고 파멸치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죄악을 너무도 많이 저질러서 자아비판과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던 지난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산천의 푸르른 초목들, 지저귀는 새들, 들, 바람, 동물들까지 모든 것이 전부 사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화로  
신성중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700-4403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 서비스는 메시지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성서낭송, 신앙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

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충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

토·막·소·식

◆ 영아부는 6월 4일 '새친구 초청잔치'를 통하여 많은 새친구들이 등록하였고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도 많은 친구들이 등록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했다.

◆ 중등2부의 여름수련회가 7월 24일(월)~7월 26일(수)에 열린다. 기도로 준비하며 중등2부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 중등3부는 6월 25일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범위는 요나·호세아·아모스이며 예선은 6월 18일, 결선은 6월 25일.

◆ 대학부에서는 6월 27일(화)부터 7월 1일(토)까지 마산, 진해, 창원지역으로 여름전도 수련회를 떠난다. 각 지역의 과거, 현재 그리고 공통점 등을 뽑아 그 지역을 파악하며 기도중이다. 세 지역 모두 전체인구의 4~5% 미만의 복음화율을 보이며, 항구도시와 공업단지라는 특이사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전통불교신앙과 무속신앙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번 대학부의 전도수련회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부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주일 오후 12에서 12시 50분까지 봉사관 1층에서 연습하고 있다. 관심있는 대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청년2부는 6월 18일 예수사랑 총동원 전도집회를 위하여 기도중이다. 전 화심방 대상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8월 21~22일, 갈릴릴홀에서 이성호 교수를 모시고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 새가족양육부에서는 6월 11일 집회 후에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범위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이며 그동안 배운 교재를 공부하면 된다.

◆ 가브리엘찬양대는 6월 15일(목) 조별찬양대회를 갖기로 하고 연습 중이다. 또한 95년 상반기 결산 성경다독상 시상식 7월 첫째주에 있으며 암송대회를 10월 19일에 갖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범위는 시편.

◆ 장년3부는 6월 25일(주일)에 특강을 실시한다. 성지순례에 관한 영화도 상영한다. 장소는 아멘홀, 시간은 12시 30분.

아멘찬양대 반주자 송영미 선생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아멘찬양대 반주자인 송영미 선생의 파이프오르간 독주회가 6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송선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루이스빌에 있는 남침례신학대학원으로 유학하여 1995년도에 오르간 연주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동교에서 음악박사(DMA.) 학위를 받았다. 유학기간 중 미국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다. 1993년 귀국, 우리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며 서울장로회 신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

7월 11일 기공식에 참가할 인원모집

그동안 온 교인이 기도해온 길림성기독교신학원 설립의 건이 중국국무원종교사무국이 설립에 동의함으로 사실상의 허가는 났다. 남은 문제는 중국의 정부 조직의 특성상 신학원 허가의 직접적인 관청인 길림성정부의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계속해서 최종적인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교회는 길림성기독교 양회와 길림성종교사무국의 양해 아래 7월 11일 현지에서 건축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오던 일이 열매를 맺게 됨에 따라 많은 교우들이 이 기공식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 기공식 참가단을 모집한다.

- 다음 -

1. 일정  
1995. 7. 10(월)~17일(일)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  
백두산 등정 및 북경관광

2. 자격  
① 충현교회 성도

우리 교회 사랑부에 다니고 있는 정보영 군(사진, 14세, 사랑부 충성남 1과)이 지난 5월 23~25일, 성남 상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수영 자유형 100M와 평영 50M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사랑부 정보영 학생

장애체전, 금메달 둘



출전하여 수영 자유형 100M와 평영 50M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 ② 길림성기독교신학원 후원회 이사
3. 신청서류
- 1) 여권소지자(비자발급)
- ① 여권
- ② 사진 1매
- ③ 인지대 25,000원 (중국비자 신청)
- 2) 여권 미소지자
- ① 사진 3장
- ② 주민등록증
-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④ 영문이름
- ⑤ 인지대 70,000(45,000원은 여권발급, 25,000은 중국비자 신청)
4. 참가 마감일 : 1995. 6. 17(토)
5. 모집방법 : 선착순
6. 비 용 : 120만원 정도(상세한 것은 추후통보함)
7. 접수처 : 충현교회 사무국 총무과장 (김차철 집사)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6/11(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 : 6/11(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예배 설교

2. 초창전도집회(6/7(수)~6/9(금)), 6/11(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때(1~5부, 찬양예배)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져 필요한 일꾼이 선택되게 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95 예수사랑 큰잔치에 부쳐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김운섭(집사, 초등3부 교사)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  
내가 세상에 파고 들어가  
길 잃고 헤매이는 양을 찾아  
어두운 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목자의 음성으로 복음나팔 불며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에게 전도하리

시간은 살같이 스치며  
죽음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헛되고 헛된 삶에서 건져내리  
전도의 문턱은 높지만 믿음의 본분지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예수복음 전하리

독수리같이 멀리 넓게 바라보며  
많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  
불꺼진 마음에 불을 켜고  
한 생명을 전도하리 구원하리  
우물가 여인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리

눈동자같이 사랑하사  
주 날개 그늘 아래 모으시고  
불신자를 압제하는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둬나게 하소서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걷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리라

이천 년전 갈보리의 십자가 바라보며  
꿈과 비전있는 '95 예수사랑  
초록빛 물든 유월의 나라를 활짝 펴고  
21세기를 향해 갈보리로 달린다

승리의 십자가 높이 들고  
빛과 자유 사랑과 평화 이룩하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 이룩하리라